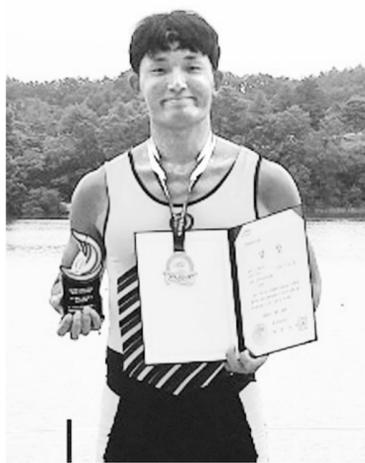


전남 조정선수단, 전국대회 잇단 '금 물살'

K-water 사장배 조정대회 손성민·오윤재·유지현 금 3개 남자일반·여고부서 은메달 2개

전남 조정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며 활약을 펼쳤다.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 조정 선수단은 지난 26-28일 충북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20회 K-water 사장배 물사랑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손성민(전남체육회)이 남자일반부 싱글스킬 결승에서 7분31초35로 결승선을 통과해 이상민(서울시청·7분33초33)과 강민성(진주시청·7분34초51)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재호와 권승민(이상 전남체육회)은 남일부 더블스킬 결승에서 6분48초16의 기록으로 유성환·강민성(진주시청·6분43초26)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오윤재(목포해양대 4년)는 남대부 싱글스킬 결승에서 7분11초25로 김도윤(한국체대·7분26초12)과 권순우(한국체대·7분58초44)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유지현(장성문항고 2년)은 여고부 경량급싱글스킬 결승에서 2위 송시연(서울체고)의 8분52초05보다 13초22 차 앞선 8분38초83으로 결승선을 통과, 우승을 차지했다. 유지현은 임도영(장성문항고 2년)과 호흡을 맞춘 여고부 경량급더블스킬 결승에서는 7분59초60으로 이예진-김시은(인천체고·7분57초61) 조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국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성과를 이끌어낸 조정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반부 우승 전남체육회 손성민



남대부 우승 목포해양대 오윤재



여고부 우승 장성문항고 유지현

광주시청 전용태, 근대5종 세계선수권 은메달

김선우와 혼성계주서 합작

한국 남녀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와 김선우(경기도청)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성계주 은메달을 합작했다. 전용태와 김선우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바스에서 열린 대회 혼성계주 경기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사격+육상) 성적 합계 1395점을 따내 모하나드 사반-살마 압말마크우드(이집트·1413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21년 서창완(전남도청)-김세희(BNK저축은행), 지난해 전용태-김선우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 혼성계주 3연패를 노렸던 한국은 우승은 불발됐지만, 2년 연속 호흡을 맞춘 전용태-김선우가 전통 종목 고른 기량을 보이며 연속 입상에 성공했다. 앞서 전용태는 남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용태는 전남 영국 바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정진화, 이지훈(이상 LH)과 함께 총 4450점을 합작, 3위를 차지했다.



혼성계주 은메달을 딴 전용태(왼쪽)와 김선우. <대한근대5종연맹 제공>

한국 근대5종은 혼성계주 은메달, 남자 단체전과 남자 계주(서창완-이지훈) 동메달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쳤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장애인배드민턴 차세대 스타 이승후 대한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선수로 선발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이승후(13·월봉중 2년)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초종목 육성지원사업 선수로 선발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승후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 2023년 기초종목육성사업 2차 소집평가에서 배드민턴 스포츠등급 SL3(지체장애) 선수로 선발됐다. 이승후는 이번 선발로 전담지도자, 훈련용품 등 기타 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승후는 지난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상담, 장애인체육인생센터 방문을 통해 처음 장애인체육을 접했으며, 지금은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전문 배드민턴 선수로 발돋움하기 위해 담양수북중학교에서 광주 월봉중으로 전학했다. 중학교 2학년일에도 불구하고 신장 180cm에 달하는 좋은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어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발굴선수이자 현재 국가대표로 발탁돼 10월말 개최되는 '제4회 항저우 아시안패러게임'에 참가하는 이정수 선수(17·전남사대부고 2년)와 함께 광주 장애인배드민턴의 차세대 스타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후는 다음달 1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8회 돌하르방배 추계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2023년 기초종목육성사업 2차 소집평가에서 배드민턴 스포츠등급 SL3(지체장애) 선수로 선발된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소속 이승후 선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에 참가해 SL3부문 남자 단식과 복식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이승후는 "(이)정수 형을 보며 배드민턴 선수의 꿈을 키워왔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과 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꿈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FC의 임지성이 지난 27일 수원삼삼과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K리그1 28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멀티골' 광주FC 임지성 28라운드 MVP

이희균·아사니·안영규 등 4명 '베스트 11'에...베스트팀도 선정

수원삼삼을 상대로 멀티골을 장식한 광주FC 임지성이 28라운드 MVP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28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MVP 임지성을 포함해 이희균, 아사니, 안영규 등 4명이 자리를 차지했다. 임지성은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광주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이 경기에서 임지성은 2-0으로 앞선 후반 1분 페널티박스 오른쪽에 있던 아사니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골을 장식했다. 후반 6분에는 정호연의 도움으로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멀티골에 성공했다. 베스트 11에 선정된 이희균은 전반 17분 안영규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장식하며 대승의 시작점이 됐다. '원발의 달인' 아사니는 토마스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시즌 7호골을 장식했다. 이희균의 골을 도왔던 '주장' 안영규는 마지막까지 수원의 공세를 막으면서 무실점 승리의 중심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날 승리로 광주는 3위(승점 42)로 뛰어올랐고, 28라운드 베스트팀에도 선정됐다. 베스트 매치는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다. 서울은 9분 만에 나온 일류첸코의 골로 1-0의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19분과 23분 주민규에게 연속골을 허용하면서 1-2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후반 종료 직전 서울 윌리안이 극적인 동점골을 장식하면서 이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K리그2 28라운드 MVP는 성남FC의 가브리엘에게 돌아갔다. 가브리엘은 26일 경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2-0 승리의 주역이 됐다. 베스트 팀은 김천삼무가 됐다. 김천삼무는 충남 아산FC와의 홈 경기에서 이준석, 최병찬, 조영욱, 김재우의 골로 4-0 대승을 이뤘다. 베스트 매치는 27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안양이 아고, 주현우, 브루노의 연속골로 발디비아의 만회골이 나온 전남을 3-1로 꺾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바둑 서수경, 노사초배 전국대회 우승

전남바둑협회 서수경이 전국대회 여성부서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남바둑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함양군 고은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에서 서수경(전남바둑협회), 한유정(전남바둑협회)이 여성국수부 우승과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수경과 한유정은 이번 대회 여성국수부에 출전해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예선을 통과, 본선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서수경은 16강전에서 백여정(한중진바둑도장)을, 8강전 울산광역시바둑협회와의 경기를 불계승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한유정을 만나 불계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이우주(전북바둑협회)에 불계승으로 여성국수부 우승을 거뒀다. 한유정은 16강과 8강에서 각각 임지우(한국바둑중 3년)와 최서비(홍익대 사범대학교 부속여자



제16회 노사초배 전국바둑대회 여성국수부 우승을 차지한 서수경(오른쪽)과 신철호 전남바둑협회 전무이사. <전남바둑협회 제공>

중 2년)을 불계승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서수경에 불계패하며 3위에 만족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타겟
-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오픈하이머, 한 남자
- 5관 달걀지근해: 7510
- 6관 오픈하이머, 조이 라이드
- 9관 엘리멘탈, 한 남자, 스파이 코드명 포춘
- 7관 싸네커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 8관 싸네커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9.15-16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
19시 30분

물결

극단 코끼리들이 온다
물결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Deutsches Radio Philharmonie

2023.09.16 17:00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GAC 재가관 시리즈 - 포시즌4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열음

일시 : 2023-09-1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